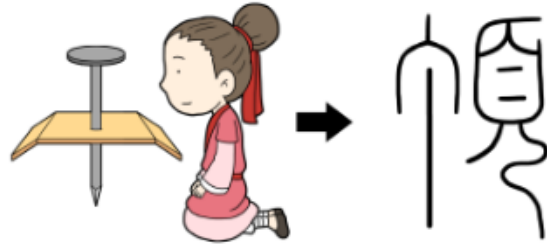


3(2)
-
361

형성문자 ①



頂

정수리
정

頂자는 '정수리'나 '꼭대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頂자는 頁(머리 혈)자와 丁(천간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丁자는 못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頂자는 사람의 '이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頁자는 이것이 사람의 얼굴과 관련된 글자임을 전달하고 있다. 이마는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므로 頂자는 '이마'라는 뜻 외에도 '꼭대기'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머리로 받치다'나 '지탱하다'와 같이 '이마'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의미들이 파생되어 있다.

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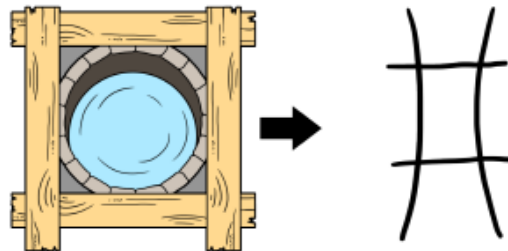
소전

頂

해서

3(2)
-
362

상형문자 ①



井

우물
정(:)

井자는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井자는 우물을 그린 것이다. 우물은 지하수가 있는 곳을 찾아 땅을 파 내려가는 방식으로 만든다. 지하수를 찾고 나면 흙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고 우물 난간을 만드는데, 井자는 우물의 난간을 그린 것이다. 井자는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다. 소전에서는 井자에 두레박을 표기한 井(우물 정)자가 쓰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쓰이지 않는다.

井

갑골문

井

금문

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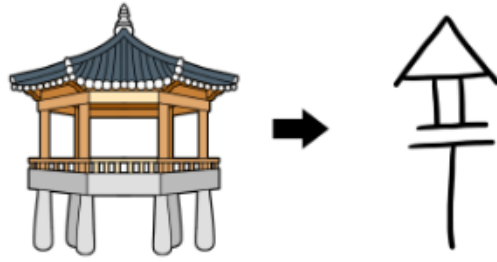
소전

井

해서

3(2)
-
363

상형문자 ①



亭

정자 정

亭자는 '정자'나 '초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亭자는 宀(돼지해머리 두)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돼지머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亭자는 임시로 머무는 집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이전에는 亭자가 高(높을 고)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것으로 풀이했었다. 그러나

亭자의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에는 丁자 위에 작은집이 宀 그려져 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높은 곳에 지어진 집'이나 또는 '높이 지어진 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亭자는 경치를 감상하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지어진 '정자'를 표현한 것이다.

亭

갑골문

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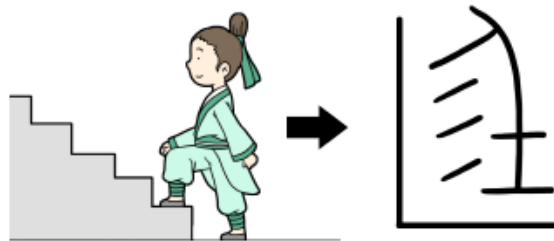
소전

亭

해서

3(2)
-
364

회의문자 ①



廷

조정 정

廷자는 '조정'이나 '관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廷자는 廴(길게 걸을 인)자와 止(천간 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廷자는 본래 큰 방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廷자의 금문을 보면

여러 개의 획이 있는 廴자 뒤로 사람이 止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계단을 올라야 할 정도의 집이라면 규모가 상당히 컸었을 것이다. 그래서 廷자는 본래 '큰 거실'이나 '큰 집'을 뜻했었지만, 후에 '조정'이나 '관아'를 뜻하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廷자로 바뀌게 되었다.

廷

금문

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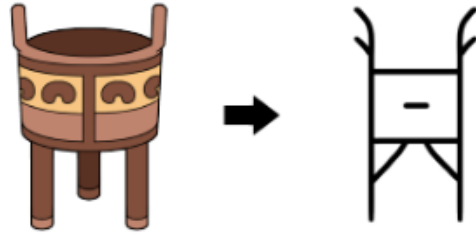
소전

廷

해서

3(2)
-
365

회의문자 ①



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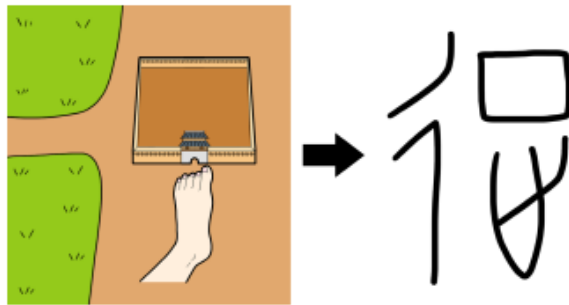
곧을 정

貞자는 '곧다'나 '충정하다', '지조가 곧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貞자는 貝(조개 패)자와 卜(점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貞자에 쓰인 貝자는 鼎(술 정)자가 잘못 쓰인 것이다. 술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것이다. 여기에 卜자가 결합한 貞자는 본래 '점을 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도 貞자에 대해 "貞, 卜問也(貞은 점으로 묻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고대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길흉(吉凶)을 물었고 이때는 올곧은 마음으로 임해야 했다. 그래서 貞자는 본래 '점을 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지만, 후에 '곧다'나 '지조가 곧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갑골문에서는 卜자가 없는 형태였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66

회의문자 ①



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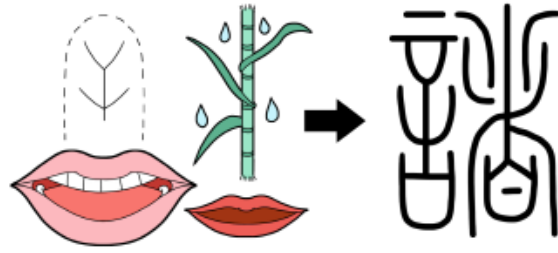
칠 정

征자는 '치다'나 '정벌하다', '토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征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正(바를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正자는 성(城)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성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正자에 彳자가 결합한 征자는 적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67

형성문자 ①



諸

모두 제

諸자는 '모두'나 '무릇', '만약', '여러'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諸자는 言(말씀 언)자와 耑(늑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耑자는 사탕수수줄을 맛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늑'이나 '사람'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 言자가 결합한 諸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諸자는 글자의 조합과는 관계없이 '이'나 '저'와 같은 대명사나 '~에'나 '~에서'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고 있다.

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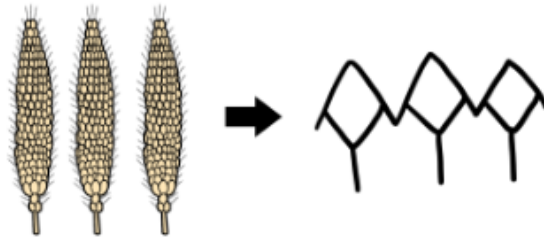
소전

諸

해서

3(2)
-
368

상형문자 ①



齊

가지런할
제

齊자는 '가지런하다'나 '단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齊자는 𠂔(돼지해머리 두)자와 刀(칼 도)자와 같은 다양한 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의 齊자는 매우 단순했었다. 齊자의 갑골문을 보면 곡식의 이삭이 나란히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곡식이 가지런히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후에 글자의 획이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갑골문에서는 곡식을 가지런히 그려 '가지런하다'나 '단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래서 齊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대부분이 가지런함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齊

갑골문

齊

금문

齊

소전

齊

해서

3(2) - 369	<div>형성문자 ①</div> <div></div>						
租 조세 조	<p>租자는 '세금'이나 '조세', '구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租자는 禾(벼 화)자와 且(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且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차→조'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수확한 벼로 세금을 냈으니 禾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租자는 '토지세'를 뜻했었다. 예전에는 전답(田畓)을 빌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토지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곡식으로 냈었는데, 租자는 바로 그런 세금을 일컫던 말이었다.</p> <table><tr><td></td><td></td></tr><tr><td>소전</td><td>해서</td></tr></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3(2) - 370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照 비칠 조:	<p>照자는 '비추다'나 '밝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照자는 火(불 화)자와 昭(밝을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照자의 금문을 보면 단순히 햇불을 들고 있는 𠂔 모습과 冫(부를 소)자가 결합되어 있었다. 여기서 冫자는 발음역할을 한다. 소전에서는 햇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𠂔(빛날 경)자로 바뀌게 되었고 해서에서는 昭자와 火자가 결합한 照자가 '비추다'를 뜻하게 되었다.</p> <table><tr><td></td><td></td><td></td></tr><tr><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금문	소전	해서
							
금문	소전	해서					